

청소년의 인적 자원에 따른 인터넷 중독 경향성

송금숙*·장윤옥**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The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Tendencies According to their Human Resources

Song, Keum-sook* · Jang, Yoon-o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tendencies according to their human resources which is composed of personal resources and interpersonal resourc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96 middle school students in Daegu. Analysis of data were done with the use of frequency, percentage, mean, factor analysis, and MANOVA with the Scheffé test appli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i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tendencies according to their personal resources such as self-control ability, problem-solving ability, and time management ability.

Second,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i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tendencies according to their interpersonal resources such as parents-support, peer-support, and teacher-support.

주제어(Key Words) : 인터넷 중독 경향성(internet addiction tendencies), 개인적 자원(personal resources),
대인적 자원(interpersonal resources)

I. 서 론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 오용으로 인한 인터넷 중독 경향성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은 청소년들의 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이들의 생활에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은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의 다양한 압력과 공격성, 충동성을 적절히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성장단계의 청소년들에게 생활 속에서 느끼는 좌절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제공해 주고(박정은, 2001),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학업, 교양, 취미 그리고 사회적 관심 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그러나 발달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잘못 사용할 경우 왜곡된 성 의식, 불안, 폭력적 충동성, 현실 도피의식 등의 의식적인 문제와 시력저하, 수면부족, 성추행 등과 같은 행동적인 문제를 보이며(성윤숙, 1999; 이선희, 1996), 학업 부진, 건강의 저하와 같은 개인적 문제나 가족이나 친구관계의 실패와 같은 대인관계 문제 등(서순미, 2002; 이현아, 2004)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경험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오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터넷 중독 경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인터넷 중독 경향성은 청소년의 개인적 자원이나 대인적 자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 자원인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공격행동, 규칙위반, 절도 등과 같은 비행을 적게 하며(허규, 1999), 문제해결 상황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게임에 중독적으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이소영, 2000)고 한다. 또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인터넷에 중독적으로 빠져들기 쉽다(이계원, 2001)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 자기통제력은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없다(안석, 2000)는 연구결과도 있다. 청소년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인터넷 중독과 관련이 깊으며,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은 일상적인 시간을 관리하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이상주·이약희, 2004; 임효정, 1999)고 보고된다.

부모지지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게임 중독 경향성이 낮다(이계원, 2001; 조아미·방희정, 2003)는 연구결과,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청소년의 학업 성취 및 학교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교사지지를 많이 받

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인터넷 중독 및 게임 중독 경향성이 낮다고 하는 연구결과들을 볼 때 대인적 자원인 부모지지가 교사지지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서주현·유안진, 2001; 조남근·양돈규, 2001; 조아미·방희정, 2003)고 하겠다. 또한 친구지지가 높거나 친구관계가 긍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성이 낮다(서주현·유안진, 2001; 이해경, 2002)고 하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청소년 인터넷 사용자는 인터넷 중독 자이기보다는 초기 및 중독 위험자군에 속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초기 및 중독 위험자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오용으로 인한 문제를 연구하기보다는 인터넷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나 관련 요인을 밝히는데 주력하고(서주현·유안진, 2001; 송미화, 2001) 있을 뿐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소년의 인적 자원이 다양한 형태의 문제 행동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을 뿐 청소년의 인터넷 오용으로 인해 경험하는 이들 각각의 문제 영역에 대한 다양한 인적 자원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결과는 거의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청소년이 인터넷 오용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대하여 청소년의 어떤 인적 자원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인터넷 중독 경향성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인적 자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적 자원의 하위 요인인 개인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을 모두 알아보는 연구들(안석, 2000; 이계원, 2001)이 있는 반면 한쪽 측면만을 알아보는 연구들(김종래, 2003; 윤혜정, 1993)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은 청소년의 내적 특성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서순미, 2002; 성윤숙, 1999; 이선희, 1996; 이현아, 2004) 때문에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대한 인적 자원의 어느 한쪽 면만을 살펴보기보다 양쪽 면을 살펴보는 것이 이 두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인터넷 중독 경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

책마련을 세우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개인적 자원인 자기통제력,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시간관리능력, 또 대인적 자원인 부모지지, 또래지지 그리고 교사지지에 따라 인터넷 중독 경향성의 정서적 문제,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 영역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인적 자원

1) 개인적 자원

개인적 자원이란 개인이 당면한 문제들이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인지, 시간, 창의성, 지각력 등의 개인에 속한 모든 자원(Gross 등, 1980)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해결능력, 대인신뢰감,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도덕성 등(강성희, 1991; 서순미, 2002; 송원영, 1999; 윤재희, 1998)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화자, 1999; 유정수, 1993). 특히 이들 개인적 자원 중 자기통제력과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다른 개인적 자원들보다 다양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에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김선희, 2002; 유정수, 1993; 정혜승, 1995) 보고되고 있으며, 시간관리능력의 경우 청소년이 여가시간을 계획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청소년의 충동적이고 비계획적인 행동을 통제하게 하는 효과적인 변인으로서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명옥, 1999)고 한다.

2) 대인적 자원

대인적 자원이란 협동, 친밀감, 충성심, 의사소통 등 두 사람 이상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의해 생기는 자원(Gross 등, 1980)으로서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대인적 자원을 체합하게 되는데 이들 대인적 자원은 청소년의 실생활에 매우 의미 있게 작용한다. 이들 대인적 자원 중

사회적 지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애정, 관심,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이나 자신에 대한 인정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잘 하는가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청소년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변인(이계원, 2001)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 의미 있는 타인은 부모, 친구, 교사들로서 이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경희, 1998; 이경주·신희식, 1997; 조남근·양돈규, 2001; 윤혜정, 1993)고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부모, 또래, 교사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되며,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일상생활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스트레스를 더 적게 느끼고, 문제 행동을 적게 하고, 우울, 공격성, 과잉불안, 사회적 위축 등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적게 경험한다(고윤주 외, 2000; 안영순, 1999; 이경주·신희식, 1997; 한미현·유안진, 1996)고 한다.

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은 비행, 가출, 약물사용 등과 같은 청소년 문제 행동 중의 하나로서 인터넷 중독에까지 이르는 않지만 인터넷을 사용함으로 인해 학교 및 가정생활에서 병적 증세나 문제 행동을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은 인터넷 중독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을지라도(라민오, 2001; 진연주·김혜연, 2003) 초기 중독자 및 인터넷 중독 경향이 있는 사용자는 그 비율이 절반정도에 이르고 있으며(서주현·유안진, 2001; 이계원, 2001; 한복희, 2001),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자가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송미화, 2001; 안석, 2000)고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점은 선행연구결과들에 나타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잘못 사용할 경우 한 가지 분야에서만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서순미(2002), 이현아(2004)는 인터넷을 자주 하거나 과

다하게 사용하는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업방해, 건강의 상실, 부모와의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다. 또한 안석(2000), 한국청소년상담원(2000)은 인터넷을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일수록 더 낮은 학업성취도, 원만하지 못한 교우관계 및 일상적인 대인관계의 감소, 사회생활 부적응, 심리적 불안 증세 및 다양한 금단증상들을 보인다고 한다.

3. 청소년의 인적 자원과 인터넷 중독 경향성

1) 청소년의 개인적 자원과 인터넷 중독 경향성

자기통제력의 결핍은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지만 인터넷을 조절해 가며 사용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인터넷 중독의 원인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계원(2001)과 이상주·이약희(2004)는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은 낮아진다고 밝히고 있는데, 특히 이계원(2001)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충동적이며 집중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인터넷에 중독 되기 쉽다고 하면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현실에서 장래의 더 큰 만족을 추구하기보다 가상세계에서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중독 되기 쉽다고 설명한다. 또한 안미영(2002)도 인터넷 중독 증세를 보이는 청소년과 중독 증세를 보이지 않는 청소년간 자기통제력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컴퓨터 중독증이 낮게 나타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을 살펴본 안석(2000)의 연구 결과, 자기통제력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대하여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문제해결능력과 인터넷 게임 중독과의 관계를 조사한 이소영(2000)은 문제해결에 대한 태도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한다. 그는 인터넷 중독 집단이 전반적으로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를 부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허규(1999)는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화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친구의 비행 유혹에 대한 거절 및 자기주장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숙·남윤주(2004)는 인터넷 사용 시간에 따라서 인터넷 중독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다. 청소년이 인터넷에 지나치게 빠져들지 않도록 인터넷 사용 시간이나 방법에 대한 지도와 더불어 청소년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보고한다. 한편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청소년의 시간관리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현아(2004)는 인터넷 중독자들은 충동성이 강하고 생활에 대한 계획성이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는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성향을 조절하고, 자기생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관리교육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2) 청소년의 대인적 자원과 인터넷 중독 경향성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부모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남근·양돈규(2001)는 부모지지를 적게 받을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이 더 높다고 하며, 이계원(2001)은 인터넷 중독집단이 비중독집단보다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밝혀 부모지지가 인터넷 중독 경향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남화정(2001) 역시 청소년에게 인터넷을 통한 학습·지식 정보 등의 유용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 적절한 애정과 수용 그리고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부모의 적절한 지지, 즉 적절한 애정과 수용 등이 뒷받침된 양육은 결국 청소년에게 건전한 인터넷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실 생활의 또래관계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알아본 이숙·남윤주(2004)는 또래들로부터 지지를 낮게 지각하고 갈등이 심한 청소년과 또래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인터넷 중독 경향이 더 높다고 말함으로써 실제 생활상의 또래관계에서의 문제점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남근·양돈규(2001)

는 또래지지가 낮은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성이 커진다고 하며, 인터넷 게임 중독과 또래지지에 관해 연구한 조아미·방희정(2003)은 또래지지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게임 중독과는 관계가 없지만 고등학생의 게임 중독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래지지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김혜원(2001)은 또래지지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남화정(2001)도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이 청소년 비행과는 달리 또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교사지지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교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인터넷 중독 경향성이 낮은(이계원, 2001; 조남근·양돈규, 2001)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또한 교사지지를 정서적·물질적·정보적·평가적 지지로 구성하여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교사의

물질적 지지가 높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성이 낮다(황수정, 2000)고 한다. 반면에 김혜원(2001)은 인터넷 중독 청소년과 비중독 청소년이 교사지지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며, 조아미·방희정(2003)은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 중독 경향성이 낮아지지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사지지가 게임 중독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소재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2003년 12월 8일~10에 걸쳐 예비조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96)

변인	내용	인원(%)	변인	내용	인원(%)
성별	남	174(44.0)	경제수준	저소득층	23(5.8)
	여	222(56.1)		중하류층	70(17.7)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43(10.9)		중류층	243(61.4)
	고졸	188(47.5)		중상류층	58(14.6)
	대졸	137(34.6)		상류층	2(.5)
	대학원이상	18(4.5)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55(13.9)
	무응답	10(2.5)		고졸	232(58.6)
아버지 직업	농림어업	9(2.3)		대졸	90(22.7)
	자영업	204(51.5)		대학원이상	8(2.0)
	생산직	36(9.1)		무응답	11(2.8)
	사무직	61(15.4)	어머니 직업	농림어업	2(.5)
	전문·행정관리직	45(11.4)		자영업	107(27.0)
	무직	5(1.3)		생산직	15(3.8)
	기타	36(9.1)		사무직	30(7.6)
컴퓨터 유무	있다	392(99.0)		전문·행정관리직	7(1.8)
	없다	4(1.0)		전업주부	199(50.3)
컴퓨터 설치 장소	본인 방 형제자매 방 부모 방 거실 기타	156(39.4) 87(22.0) 25(6.3) 109(27.5) 19(4.8)		인터넷 설치 여부	예
			인터넷 이용 장소	아니오	11(2.8)
				집	378(95.5)
				PC방	13(3.3)
				친구 집	2(.5)
학교	2(.5)				
기타	1(.2)				

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기초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2003년 12월 28일부터 2004년 1월 7일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대구광역시 각 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에 총 460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담당 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배부한 다음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452부였으며 이 중 불완전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를 제외한 396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개인적 자원

자기통제력 척도는 정혜승(1995), 송원영(1998)이 사용한 척도를 참고로 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hronbach α 계수는 .72이다.

문제해결능력 척도는 D'Zurilla와 Nezu(1990)가 개발한 사회적 문제해결 양식(SPSI)을 김경희(1998)가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번안한 척도와 이소영(2000)이 사용한 척도를 참고로 하여 총 4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hronbach α 계수는 .93이다.

시간관리능력 척도는 이원휘(2000), 김동일·박경애·김택호(1995)가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여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다'에 5점을 주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관리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hronbach α 계수는 .89이다.

2) 대인적 자원

부모지지 척도는 남화정(2001)이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hronbach α 계수는 .95이다

또래지지 척도는 Dubow·Ulman(1989)이 사용한 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 중 또래지지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안·수정하고, 최지은(2001), 유은희(1994)의 척도를 참고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hronbach α 계수는 .88이다.

교사지지 척도는 Dubow와 Ulman(1989)이 사용한 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 중 교사지지 척도를 본 연구자가 번안·수정하고, 이영재(1988), 조금석(1997)의 척도를 참고하여 전체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hronbach α 계수는 .86이다.

3) 인터넷 중독 경향성 척도

인터넷 중독 경향성 척도는 Young(1996), 송원영(1999), 안석(2000) 그리고 라민오(2001)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정한 20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나, 이 중 4번째 요인이 내용상 관련이 적은 1문항만으로 구성되어있어 이를 제외시킨 후 19문항을 인터넷 중독 경향성 척도로 사용하였다. 추출된 3개의 요인 중 첫 번째 요인은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감, 허무감, 우울함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맹목적 기대감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서적 문제'(8문항)요인으로 두 번째 요인은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학업 및 가정 등 일상생활에 관한 문제 등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8문항)요인으로,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친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인관계 문제'(3문항)요인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이 척도의 전체 Cronbach α 계수는 .89이며, 각 하위 요인별 Cronbach α 계수는 정서적 문제가 .84,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가 .84, 대인관계 문제가 .53이다.

4.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각 측정도구의 구성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과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청소년의 인적 자원에 따라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변인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개별비교는 Scheffé의 사후검증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청소년의 개인적 자원에 따른 인터넷 중독 경향성

청소년의 개인적 자원에 따라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청소년의 개인적 자원에 따른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대한 다변인변량분석 결과

Effect	Wilks	Apporox.F	Hypoth.DF	Error DF	P
자기통제력	.855	10.600	6.000	782.000	.000
문제해결능력	.959	2.781	6.000	782.000	.011
시간관리능력	.951	3.333	6.000	782.000	.003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주효과($F=10.600,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정

도에 따라 인터넷 오용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이 높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자기통제력이 낮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보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와 대인관계 문제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기통제력이 높다고 지각하거나 중간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자기통제력이 낮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보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서적 문제에서의 본 연구결과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은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보다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집중력이 부족하고 인터넷에 중독 경향이 높다(라민오, 2001; 이계원, 2001)는 선행연구결과들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인터넷을 사용할 때 충동적이지 않고 절제적인 성향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에서의 본 연구결과는 자기통

제력이 높은 청소년은 인터넷을 적절하게 사용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송원영, 1999; 윤재희, 1999), 개인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할 경우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김동욱, 2001)는 선행연구결과들로 설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문제에서의 본 연구결과는 자기

<표 3>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따른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 결과

인터넷중독 경향성 자기통제력	정서적 문제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		대인관계 문제	
	M	SD	M	SD	M	SD
上(64)	2.14 a	.80	2.06 a	.80	1.58 a	.58
中(265)	2.72 b	.81	2.23 a	.79	1.98 b	.69
下(67)	3.21 c	1.01	2.58 b	1.02	2.51 c	1.05
F값	25.95***		6.90**		26.09***	

** $p < .01$ *** $p < .001$

※ a, b, c는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가상공간의 만족과 함께 현실세계에서의 대인관계도 지속시키는 경향이 높지만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가상공간의 즉각적인 만족에 계속 집착하게 되어 결국 현실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고 한 송원영(1998)의 연구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인터넷을 통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현실세계의 대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의 주효과($F=2.781,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에 따른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 결과

문제해결능력	인터넷중독 경향성		학업 및 일상생활문제		대인관계문제	
	M	SD	M	SD	M	SD
상(54)	2.41 a	.93	1.98 a	.80	1.76 a	.72
중(295)	2.72 ab	.88	2.27 ab	.83	2.03 ab	.79
하(47)	2.96 b	.93	2.55 b	.91	2.11 b	.81
F값	4.97**		5.92**		3.32*	

* $p < .05$ ** $p < .01$

※ a, b는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에 따라 인터넷 오용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제해결능력이 높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문제해결능력이 낮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보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서적 문제에서의 본 연구결과는 자신을 효율적 문제해결자로 지각하는 사람은 덜 불안하고 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역기능적 사고나 비합리적 신념이 적고(Heppner, Reeder & Larson, 1983), 심리적 안정이 높다(Hanson & Mintz, 1997)는 연구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청소년은 인터넷을 오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혼란이나 우울,

불안, 맹목적 기대감 등 다양한 정서적 문제를 적게 경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에서의 본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문제해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일상의 문제들을 더 쉽게 해결하고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Hanson & Mintz, 1997), 긍정적인 문제해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으며(유정수, 1993), 문제해결훈련 프로그램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짐과 동시에 인지적 영역에서도 명확한 향상이 이루어졌다(이재경, 2000)는 선행연구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문제에서의 본 연구결과는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자라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화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허규, 1999)고 한 선행연구결과를 미루어 볼 때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감정에 치우치기 보다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고, 따라서 가상세계에 의존에 따른 현실의 대인관계 문제를 더 적게 경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시간관리능력의 주효과($F=3.333,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의 시간관리능력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시간관리능력

〈표 5〉 청소년의 시간관리능력에 따른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 결과

인터넷중독 경향성 시간관리능력	정서적 문제		학업 및 일상생활문제		대인관계문제	
	M	SD	M	SD	M	SD
上(55)	2.40 a	.88	1.98 a	.95	1.86	.87
中(281)	2.70 ab	.88	2.27 ab	.77	2.01	.74
下(60)	3.02 b	.91	2.51 b	.99	2.12	.94
F값	6.87**		5.80**		1.59	

* $p < .05$ ** $p < .01$

※ a, b는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정도에 따라 인터넷 오용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와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관리능력이 높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시간관리능력이 낮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보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와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서적 문제에서의 본 연구결과는 최근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한 채팅, 게임, 검색 등을 하면서 시간관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임효정, 1999)는 연구결과를 감안해 볼 때 시간관리능력이 높은 청소년은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계획된 시간 안에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일상에서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데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에서의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이 인터넷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때 인터넷 사용으로 인하여 공부나 가정생활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대인적 자원에 따른 인터넷 중독 경향성

1) 청소년의 대인적 자원에 따른 인터넷 중독 경향성

청소년의 부모지지에 따라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부모지지의 주

〈표 6〉 청소년의 대인적 자원에 따른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대한 다변인변량분석 결과

Effect	Wilks	Apporox.F	Hypoth.DF	Error DF	P
부모지지	.908	6.420	6.000	782.000	.000
또래지지	.947	3.630	6.000	782.000	.001
교사지지	.961	2.632	6.000	782.000	.016

〈표 7〉 청소년의 부모지지에 따른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 결과

인터넷중독 경향성 부모지지	정서적 문제		학업 및 일상생활문제		대인관계문제	
	M	SD	M	SD	M	SD
上(75)	2.20 a	.79	1.98 a	.78	1.68 a	.62
中(261)	2.77 b	.88	2.31 b	.81	2.04 b	.74
下(60)	3.06 b	.85	2.39 b	.99	2.26 b	1.04
F값	19.04***		5.41**		10.51***	

** $p < .01$ *** $p < .001$

※ a, b는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효과($F=6.420,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의 부모지지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부모지지에 따라 인터넷 오용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중간 정도로 받거나 낮게 받는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보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문제에서의 본 연구결과는 부모에 대한 긍정

자녀관계가 가장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관계로 자녀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김경신·김진희, 2003)는 선행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부모의 지지적 태도가 청소년이 또래관계 및 모든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정서적 기반이 되고 현실세계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주효과($F=3.630,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의 또래지지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청소년의 또래지지에 따른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 결과

인터넷중독 경향성 또래지지	정서적 문제		학업 및 일상생활문제		대인관계 문제	
	M	SD	M	SD	M	SD
上(64)	2.58	.84	2.07 a	.76	1.93 a	.80
中(269)	2.71	.91	2.22 a	.83	1.96 a	.75
下(63)	2.84	.89	2.64 b	.89	2.27 b	.88
F값	1.26		8.58***		4.31*	

* $p < .05$ *** $p < .001$

※ a, b는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적인 지각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성과 관계가 있고, 부모에 대해 거부적으로 지각할수록 정서불안이 심해진다고 밝힌 연구결과(박은미, 1993)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부모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부모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에서의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가 높고(안영순, 1999), 부모가 자녀를 거부적으로 양육하거나 부모-자녀간 갈등이 많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이탈이 증가한다(박영신·김이철, 2000)는 선행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학업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문제에서의 본 연구결과는 부모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또래지지에 따라 인터넷 오용으로 인한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와 대인관계 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거나 중간 정도로 받는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또래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보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와 대인관계 문제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의 경우,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청소년들은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및 행동문제를 보이고(한미현·유안진, 1996), 또래지지가 많거나 또래관계가 좋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학업성취도가 높다(김윤경, 1998; 안영복, 1984)는 연구결과들로 설명될 수 있다.

대인관계 문제에서의 본 연구결과는 또래는 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원과 안정감을 제공하고 서로에게 지지, 격

려, 피드백을 함으로써 스스로 유능하고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기 때문에(최윤미, 1998) 또래 지지가 높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가상세계에 몰입하게 하기보다는 현실 세계의 대인관계를 지향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교사지지의 주 효과($F=2.632,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의 교사지지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학생 간 상호작용은 학교 학습 풍토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져다 주며(최승우, 2001), 청소년이 교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각할 때 학력이 보다 향상된다(전관홍, 1992; 한광택, 1990)고 한 연구결과들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교사지지와 청소년간의 연구는 대부분 학업성취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알아보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서 이에 대한 비교·논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이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교사가 청소년의 생활에 영향력 있는 참여자인 것을 미루어 볼 때 교사지지가 청

〈표 9〉 청소년의 교사지지에 따른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 결과

교사지지	정서적 문제		학업 및 일상생활문제		대인관계문제	
	M	SD	M	SD	M	SD
上(63)	2.41 a	.85	2.08 a	.90	1.75 a	.62
中(266)	2.71 ab	.87	2.26 ab	.77	2.03 ab	.77
下(67)	2.98 b	.98	2.44 b	1.04	2.14 b	.96
F값	6.63**		3.04*		4.51*	

* $p < .05$ ** $p < .01$

※ a, b는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교사지지에 따라 인터넷 오용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교사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보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문제에서의 본 연구결과는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학생일수록 자신의 모습이나 학급에서의 자신의 활동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다(황순필, 1997)는 연구결과들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사지지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인터넷에 대한 맹목적 기대감이나 허무감,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인 문제를 덜 경험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에서의 본 연구결과는 교사

소년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문제에서의 본 연구결과는 학생들간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교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학생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긴밀하고 바람직하게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학생의 인간관계가 바람직하게 형성되어야 하고(황순필, 1997), 교사-학생 상호작용은 학교 학습 풍토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학교생활에 대한 정서적, 사회적 안정감을 가져다준다(최승우, 2001)는 연구결과들로 설명될 수 있다. 교사-학생간의 관계가 학생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교사지지는 교사-학생간 좋은 인간관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학생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겠다. 청소년의 대인관계란 학교에서의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인관계를 뜻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 생활이 지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볼 때 청소년이 급우들간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교사지지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인터넷상의 가상세계에 빠지지 않고 현실생활의 사람들과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얻은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개인적 자원에 따른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문제해결능력, 시간관리능력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 문제해결능력이 높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낮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학업 및 일상생활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간관리능력이 높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낮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학업 및 일상생활문제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대인적 자원 따른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의 부모지지, 또래지지, 그리고 교사지지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지지, 교사지지가 높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낮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학업 및 일상생활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또래지지 높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낮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학업 및 일상생활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인적 자원의 상대적 영향력에 관한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의 인터넷 오용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영역에서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는 자기통제력, 부모지지 순으로, 청소년의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 영역에서의 인터넷 중

독 경향성에는 또래지지, 자기통제력 순으로,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 영역에서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는 자기통제력, 또래지지 순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인터넷 오용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영역과 대인관계 문제 영역에서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는 자기통제력이, 학업 및 일상생활 문제 영역에서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는 또래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또한 대인적 자원 중에 부모지지가 다른 변인들보다 청소년의 인터넷 오용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에서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볼 때 인적 자원 중 자기통제력, 문제해결능력, 부모지지, 그리고 교사지지는 청소년이 인터넷을 잘 못 사용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모든 영역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으며, 특히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을 감소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적 자원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고 여가시간을 보다 계획적으로 보내도록 노력함으로써 인터넷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문제의 정답만을 강조하기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지과정을 중요시 하여 학생들이 긍정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가지고 일상생활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부모는 내외적으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 자녀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여 자녀에게 권위적이고 지시적인 태도로 대하기보다 지지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이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그들에게 관용적인 자세를 갖도록 이끌어주고, 그들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또래간에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인터넷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생활지도에 힘써야 할 것이며, 학습 매체인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의 내용과 사용법에 관한 바른 제시를 학생들에게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개인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에 따른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잠재적 에너지원인 개인적 자원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통한 대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인적 자원의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성희(1992). 아동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적응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의 역할.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김경신·김진희(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6(1), 15-25.

김경희(1998).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김동욱(2001). 인터넷 이용충족, 플로우 및 개인적 성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김동일·박경애·김택호(1995). 청소년 시간 관리 연구: 프로그램 종합 보고서-청소년 상담연구 21.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김명옥(1999). 청소년복지를 위한 비행청소년의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김선희(2002). 자기통제력과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김종래(2003). 청소년의 소외와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 석사학위논문.

김윤경(1998).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에 따른 심리사회학적 적응과 행동특성.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김화자(1999). 대학생의 자아 정체감 수준에 따른 역기능적 가족구조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차이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김혜원(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약과 관련변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8(2), 91-117.

고윤주·김영신·노주선(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또래의 수용, 친구의 지원과 사회적 자신감간의 구조 모델. *한국발달심리학회지* 13(2), 65-78.

남화경(2001).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이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라민오(2001). 충동성, 인터넷 중독 경향과 청소년의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박영신·김이철(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38(2), 109-146.

박정은(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 및 영향 변인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서순미(2002). 청소년 인터넷 중독집단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및 자기개념.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서주현·유안진(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친구관계의 특성. *아동학회지* 22(4), 149-166.

성윤숙(2000). 인터넷 시대의 자녀양육방식과 부모자녀관계. *한국가족복지학회지* 5(1), 105-120.

송미화(2001). 가족기능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송원영(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안 석(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영순(1999). 고등학생의 부모-자녀관계와 행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안영복(1984).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 성적간의 관계 분석.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이경주·신효식(1997).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원 및 지지유형 수준에 따른 부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5-25.

이계원(200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이상주·이약희(2004).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원인과 결과변인 탐색. *한국청소년 연구* 15(2), 305-332.

이선희(1996). 청소년들의 PC통신 활용실태 및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이소영(2000). 게임의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의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이숙·남윤주(2004).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 사용에 따른 인터넷 중독. *대한가정학회지* 42(3), 1-16.

이영재(1988).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

학위논문.

이원희(1999). **고등학생의 시간관리와 학업 성취와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이재경(2000). 비행청소년을 위한 문제해결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6, 193-211.

이해경(2002).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의 폭력게임 중독을 예측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14(4), 55-79.

이현아(2004). 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시간관리교육프로그램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42(10), 63-141.

임효정(1999). **사이버 의존집단과 비의존집단간의 심리특성연구: 대인매민성과 우울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유은희(1994). **학교적응·불안·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유정수(1993). **문제해결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분석과 그 요인 인지-행동 중심의 프로그램과 인지-정의-행동중심의 프로그램간의 효과 비교**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윤재희(1998).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윤혜정(1993). **청소년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지지 지각**.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조남근·양돈규(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4(1), 91-111.

조금석(1997). **부모의 양육 태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행위적 영역의 학습 습관과의 관계**.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조아미·방희정(2003).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1), 249-275.

정혜승(1995).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통제성 및 비행기록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전관홍(1992). **교사에 대한 학생의 지각과 학습태도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진연주·김혜연(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영향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7(1), 103-118.

최승우(2001). **교사-학생의 상호작용 유형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최윤미(1998). **현대청년심리학**. 서울: 학문사.

최지은(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허 규(1999). **충동성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한국청소년상담원(2000). **청소년의 PC중독,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39**. 서울: 한국 청소년상담원.

한광택(1990). **교사-학생의 인간관계가 학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미현·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82-194.

한복희(2001). **인터넷 중독 정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 역기능에 관한 연구**.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황순필(1997). **고교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인간관계와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D'zurilla, T. J. & Nezu, A. M.(1982). **Social Problem Solving in Adults**. In P. c. Kendall(Ed.), *Advances in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1, 201-274.

Eric, F. Dubow & Douglas, G. Ulman(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1), 52-64.

Gross, I. H., Crandall, E. W. & Knoll, M. 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NJ: Prentice-Hall, Inc.

Hanson, K. M. & Mintz, L. B.(1997). **Psychological Health and Problem-Solving Self-Appraisal in Older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433-441.

Heppner, P. P., Reeder, B. L. & Larson, L. M.(1983). **Cognitive variables associated with personal problem-solving appraisal: Implications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537-545.

Young, K. S.(1996).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u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y Reports* 79, 899-902.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개인적 자원인 자기통제력,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시간관리능력, 또 대인적 자원인 부모지지, 또래지지 그리고 교사지지에 따라 인터넷 중독 경향성의 정서적 문제, 학업 및 일상생활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 영역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자기통제력, 문제해결능력이 높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낮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학업 및 일상생활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관리능력이 높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낮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학업 및 일상생활문제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지지, 교사지지가 높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낮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학업 및 일상생활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지지가 높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이 낮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학업 및 일상생활문제,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의 인터넷 오용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영역에서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는 자기통제력, 부모지지 순으로, 청소년의 학업 및 일상생활문제 영역에서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는 또래지지, 자기통제력 순으로, 청소년의 대인관계 문제 영역에서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에는 자기통제력, 또래지지 순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게재확정일자: 2004년 6월 11일